

신여성의 '양가성'과 '집 떠남' 고찰

박 종 홍*

<목 차>

1. 머리말
2. 신여성의 '양가성'과 생성 기반
3. '집 떠남'의 양상과 의미
4. 맺음말

【요 약】

본고는 <혼명에서>를 대상으로 삼아 백신애의 여성의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신여성 주인공의 '양가성'과 그러한 의식이 외현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집 떠남'의 문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의 의식 속에서는 가족주의 담론의 주체인 어머니와 사회주의 담론의 주체인 S의 언어가 상호 경쟁하고 충돌하여 양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S는 애정의 대상이자 이념의 동지란 점에서 사회주의 담론에는 자유주의 담론도 일정하게 포섭하고 있다. 백신애의 소설에서는 대개 남자 가족이 부재하고 침묵한다. 이것은 지방 소도시의 자본가이자 지주이면서도 가정에서는 가족주의 담론을 완강하게 드러내는 아버지와 이와 대척적으로 계급 해방의 사회주의 담론을 지향한 오빠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의 언어를 거부하고 오빠의 언어를 선택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과격한 아버지의 언어 대신에 온건한 어머니의 언어와 대립하면서 애인이자 동지인 S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때에도 어느 언어의 일방적 배제 대신에 양가성 속에서 그것을 포섭하면서 지양하고 있다.

집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보호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감금과 규제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여성의 '집 떠남'은 가족의 보호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구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혼명에서>의 '나'는 의식의 양가성 속에서 가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각축하고 있듯이 집을 떠나는 양상도 이에 대응하여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나'에 있어 사회운동을 위한 '사회적 오랜 집 떠남'과 결혼에 따른 '가족적 오랜 집 떠남'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현재에 전향자이자 이혼녀이다. 그렇지만 '자유적 짧은 집 떠남'과 '가족적 짧은 집 떠남'은 현재에 이루어진 행위이면서 S를 만나는 구체적 계기를 이루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회적 오랜 집 떠남'에 연결되고 있다. '나'에게 S는 애인이자 그 이상의 존재이며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집을 떠날 결심을 확고히 한다. 이런 점에서 낙관적 전망 속에서 자유주의 여성 담론을 포섭한 사회주의 여성 담론을 뚜렷이 드러낸다.

본고에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혜석과 김명순처럼 가부장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자유로운 애정의 실현을 절대시하던 자유주의 여성 담론, 자본주의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우선시하여 이념의 실현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던 강경애의 사회주의 여성담론, 선배 여성 작가들보다는 온건하지만 여전히 일탈적인 애정을 중시한 최정희의 여성담론과도 변별되는 백신애의 독자적 여성담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머리말

근대는 여성의 삶에 야누스적인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여성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근대는 남성들보다 훨씬 모순된 것으로 경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인으로써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써 이중의 종속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은 그래도 구여성과 달리 희망과 기대 속에서 독립적 자아를 실현하고자 용감하게 가정을 떠나 사회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과 사회의 모순된 요구와 억압 속에서 그들은 심하게 동요하며 방황하고 좌절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신여성들에게 전통적인 덕목을 준수하기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습의 파괴자가 되기를 요구했다. 이에 신여성들의 자아 정체성은 심각한 균열과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¹⁾

191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신여성 작가들은 가정과 사회의 이러한 모순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혜석과 김명순처럼 자유주의 여성해방사상의 영향 속에서 가부장 제도의 인습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이성 간의 애정을 신성시하면서 가부장 제도의 개혁을 통해 여성의 구원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강경애와 박화성처럼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의 영향 속에서 동지 간의 이념을 절대시하면서 계급의 해방을 통해 여성의 구원을 모색하기도 하였다.²⁾

1)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 2002. 2, 1-23쪽.

2) 여성해방 운동에는 보통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해방론자의 입장과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 피지배의 원인을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잉여가치의 발전' 즉 사유재산의 현상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남성에게 있어서와

그러나 문화적 금제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과 경제적 궁핍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별개의 일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여성 작가들의 시도에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백신애는 이러한 양극화된 여성해방사상의 경향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신여성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애정을 통한 여성해방과 이념을 통한 여성해방의 어느 한 쪽을 배타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혼명에서>를 대상으로 삼아 백신애의 여성의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때에 신여성의 ‘양가성’과 그러한 의식이 외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집 떠남’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혼명에서>는 백신애의 병사 한 달 전인 1939년 5월에 발표된 작품으로 원숙한 기법과 치열한 의식이 잘 나타나는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신여성의 ‘양가성’이 어떤 생성 기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의식의 표출인 ‘집 떠남’의 양상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애의 여성해방사상이 신여성 주인공의 의식과 행위 양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의 특성과 가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백신애 소설은 동시대 다른 여성 작가와의 대비 연구 및 단독으로 다룬 연구를 통해 비교적 풍부하게 검토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백신애가 빈곤과 여성의 문제를 함께 다룬 작가란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에 여성 문제를 중시한 작가로 보거나,³⁾ 빈곤 문제를 중

마찬가지로 여성의 참된 해방은 오직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유재산의 폐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해방론자들은 성별 계급제도가 동물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유재산제보다 앞선 것이며, 사유재산제가 소멸되는 날에도 성별 계급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극복하는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타 해밀타, 『여성해방논쟁』, 최민지 역, 풀빛, 1982, 15-18쪽.

시한 작가로 보거나,⁴⁾ 두 가지 문제를 유기적으로 포괄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작가라고 보는 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이러한 기왕의 연구는 작품의 소재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 작가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통합하여 일관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정작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런 점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본 고에서와 같은 세부적 과제에 대한 미시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을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2. 신여성 주인공의 '양가성'과 생성 기반

백신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의 자아 정체성이 일제강점하에서 얼마나 심하게 균열되어 모순을 드러내는가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신여성 작가들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중의 종속에 의한 신여성의 '양가성'을 더욱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지방 소도시에서 근대적 산업의 일종인 정미소 경영으로 재산을 축적한 신흥 자본가 집안 출신이었다는 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듯하다.⁶⁾

3)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7. 12, 113-136쪽. 윤옥희, 「1930년대 여성작가 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86-130쪽. 이은숙, 「백신에 소설 연구」, 1989. 8, 1-94쪽.

4) 한명환, 「백신에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6, 1-83쪽.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 연구」, 효성여대 박사논문, 1992, 2, 30-141쪽.

5)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7. 12, 104-115쪽. 김미현, 「'사이'에 집짓고 살기-백신에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217-250쪽.

6) 백신애의 부친 백내유는 영천 읍내에서 미곡상과 정미소를 경영하여 “백씨 5형제네 돈이 마르면 영천의 돈이 마른다”고 할 정도로 세력이 컸으며 지

바흐친에 의하면 ‘양가성’(ambivalence)은 중세의 사육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하늘에 다가서는 상향성과 땅에 다가서는 하향성, 출생과 고통, 식량과 배설, 찬사와 욕설, 웃음과 울음 이 모든 대립적인 것들은 하나의 우주 속에서 양가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숭고한 것과 저속한 것이라고 구분지어진 것에서 상향적인 것을 하락을 하락시키고 하향성의 부정적 가치 속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는 태도가 양가성이다.⁷⁾ 하지만 지마는 바흐친이 현대사회에서의 사육제적 양가성의 사회적 경제적 기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사육제를 자본주의 시장의 환유로 파악하면서, 양가성이란, 가치, 소설적 줄거리 및 등장인물들에 대한 단의적인 규정이 더 이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가치의 문제 그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설유형의 특징이라고 했다. 모든 가치들이 교환가치에 궁극적 기원을 두고 있는 세계, 즉 미와 추, 진과 위, 선과 악 사이의 모든 질적 대립들이 양적 가면을 쓴 것으로 밝혀지는 시장의 세계에서는 사물들을 양분화하는 가치평가는 허위적인 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⁸⁾

<혼명에서>의 신여성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S’를 청자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지만 S가 그녀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1부의 제목이 ‘귀먹은 자의 정적에서 외오는 독백’이다. 화자인 ‘나’가 혼자 독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의 고백은 독백이면서 개인적인 혼자 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고백은 S란 구체적 존재를 상대로 삼고 있으며, 인용되는 대화를

역에서의 지나친 상업적 경쟁 때문에 인심이 사납다는 말도 들었다. 김용성, 『현대문학사탐방』, 국민서관, 1973, 243쪽.

7) 최현무, 미하일 바흐친과 후기 구조주의, 바흐친과 대화주의, 김옥동 편, 나남, 1990, 256쪽.

8) 페터 V. 지마, 『소설과 이데올로기-현대소설의 사회사』, 서영상·김창주 역, 문예출판사, 1996, 43쪽.

통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있기도 한다. 이때에 그녀의 발화는 공동체와 무관한 고립된 언어가 아니다. 두디에 의하면 고백은 “한 개인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자신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청중에게 자신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자의식적인 시도”⁹⁾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자 ‘나’는 대립되는 집단의 사회어를 동시에 발화하고 있다. 이때에 대립하는 두 가지 사회어와 그것에 의거한 담론의 언어 주체는 ‘나’의 어머니와 애인인 S다. 어머니는 ‘정성’과 ‘눈물’같은 감성적인 어휘로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S는 ‘용기’와 ‘의기’ 같은 의지적인 어휘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두 언어 주체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가족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양분된 대립 개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충돌하고 경쟁함으로써 양가성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가 가부장 제도를 유지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가족주의 언어 주체라면, S는 모순된 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언어 주체이다. 그녀의 정체성은 대립하는 두 언어 주체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¹⁰⁾

9) Terrence Doody, *Confession and Community in the novel*,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0, p.4.

10) 텍스트에서는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단 언어 즉 ‘사회어(sociolecte)’가 상호충돌하고 있다. 사회어란 소설과 그 구조들을 사회언어학적 상황에 결합시키는 관계인 것이다. 잠정적으로 사회어란 하나의 코드화된 어휘 목록, 다시 말해 특별한 집단 관여성의 법칙에 따라 구성된 어휘 목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주의, 인간주의, 기독교주의, 사회주의 등의 사회어가 그 자체의 담론화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이 담론화는 충분히 이질적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비교적 동질적인 코드와 어휘 목록으로부터 몇몇 관점에서는 서로 반박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이한 담론들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담론화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이론적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 즉 현실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사회어의 경험적 의사표명인 것이다. 피에르 지마, 『문학의 사

나는 가족들의 정성을, 아니 그보다 어느때든지 그들을 배반하고야말 인간임을 확실히 자인하면서도, 그들의 사랑을 배반할수없으며, 나에게 이고통을 주는가족을 미워하여야 될것이로대 그반대로 지극히 사랑합니다.

웨? 나는 내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며, 그들의 원하는 딸이되지 못합니까!

웨 나는 기어히 배반하고야말 인간이거든 그들의 사랑과 정성에 무엇까닭에 감격합니까? 감격할 뿐만아니라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이 생명이라도 바쳐버리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웨? 나는 그들을 배반할것을 단념하지 못하며 웨또 기어히 배반해보겠다고도 하는것일까요!¹¹⁾

인용문에서 ‘나’는 가족들의 관심에 양가적 반응을 보인다. 가족들을 배반할 인간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들을 배반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머니로 대변되는 가족들을 미워하면서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왜 그녀는 명료하게 가족들의 호의와 관심을 배반하지 못하고, 왜 그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녀가 정성과 사랑이라는 가족주의의 언어를 일의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은 그녀를 편안하게 보호하는 기제이지만 그런 만큼 규범에 의거하여 그녀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 가족주의 제도와 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감금되었던 어머니들이 딸에게 그러한 것들에 순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통 사회에서 여성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성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궁 가족’과 ‘공식 가족’의 목표가 다행스럽게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 한다. 여성이 일정 기간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권력 기

회비평론』, 정수철 역, 태학사, 1996, 166-188쪽.

11) 백신애, <혼명에서>, 『조광』, 1939. 5, 243쪽.

반인 자궁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자궁 가족(uterne family)'은 남편의 집에 편입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젊은 여성이 점차 자신이 낳은 '핏줄'을 이 집안에 더해감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며느리가 포함되며 남편은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선호와 딸에 대한 구속 의도가 실질적 이해관계 때문이란 것이다.¹²⁾

최혜실은 “그는 능력 있었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오빠를 따랐다. 오빠의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함으로써 그와 연대하며 일종의 '어머니 공포증(matrophobia)'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¹³⁾라고 했다. 백신애가 모성적 침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와 단절하고 모성적 양육을 대체할 남성인 오빠를 발견한 것으로 본다. 물론 백신애에게 오빠의 영향은 컸다. 그렇지만 백신애의 소설의 신여성 주인공들이 남성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단절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남성의 침묵은 어머니 공포증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남성의 언어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⁴⁾

백신애 있어 아버지와 오빠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척적인 언어 주체였다.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아버

12)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79쪽.

13) 최혜실, 「그 여자가 말하는 세 가지 방식」, 『아름다운 노을 (외)』, 최혜실 편, 범우, 2004, 424-425쪽.

14) 신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백신애의 초기작인 <나의 어머니>(『조선일보』, 1929. 1.1-6)와 <낙오>(『중앙』, 1934. 12)에서도 남성은 부재한다. 그러니까 신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백신애의 소설에서는 거의 남성 가족이 부재하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는 대내적으로는 철저한 가족주의에 의거하여 백신애의 교육 및 사회 활동에 강한 규제를 가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오빠의 사회주의에 동조하여 부녀간의 갈등을 야기되었던 것이다.¹⁵⁾ 그렇지만 백신애는 아버지의 가족주의를 부정하고 오빠의 사회주의를 직설적으로 긍정할 수 없었기에 남성의 부재를 통한 침묵이라는 우회적인 발화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란 온건한 어휘로 아버지의 강압과 금지란 과격하 어휘를 대체하고 있다.

백신애는 <사명에 각성한 후>(『신가정』, 1935. 2)에서 엘렌케이의 담론을 직접 인용하면서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담론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애의 자유는 배제하면서 모성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녀는 “여성에게서 찾아보지 못할 특질이 남성에게 있고 남성에게서 찾아보지 못할 것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니 해산한다는 것을 남성에게 떼어 맡기지 못하는 이상, 남성과 여성은 서로 없는 것을 보충하며 한 가정 한 사회를 위하여 각기 사명에 충실한 후 참된 분업적 분류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¹⁶⁾라고 한다. 여성이 ‘눈앞의 부질없는 소승적 자유’를 위해 직업전선에서 남성과 경쟁하고 이로 인해 영혼의 교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남녀의 대립을 양두사의 두 머리가 서로 먹이를 먹겠다고 싸우는 것에 비유한다. 남성과 여성이란 한 몸에 달리 양두사의 두 머리처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상호보완적 존재인데 쓸데없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직업 활동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의 의의를 간과하고 있다. 여성의 직업 활동에 대한 백신애의 이런 편협한 이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그것의 성장배경과 무

15) 이강언, 「백신애의 삶과 문학」, 『한국현대소설의 전개』, 형설출판사, 1992, 124-126쪽.

16) 백신애, <사명에 각성한 후>, 위의 책, 352쪽.

관하지 않을 것이다.

<혼명에서>에서 '나'는 어머니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으며 자신이 동조하는 S의 언어를 독단적으로 강요하지도 않는다. 대답하는 언어의 공존을 통해 양가적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녀에게 어머니와 S란 두 언어 주체는 팽팽하게 대립하여 어느 쪽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의식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양가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녀는 남성의 중심적 언어에서 벗어난 여성 특유의 언어를 충실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는 '두 번 사용한 양피지'라고 한다. 그 작품들의 표면상의 구상들은 보다 깊은 그리고 보다 접근 불가능한 의미 수준들을 숨기거나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 담론의 이중 목소리가 더 이상 통일성과 독자성의 결여로서가 아니라 텍스트의 특징으로 인식될 때에 남성적 가치 척도 앞에서 침묵하게 만들었던 중심에서의 균열은 또 다른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S!

문득 S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구의 얼굴보다도 명확하게 내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당신의 일흔을 가만이 입안에 돌려보니 갑자기 당신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도모르게 벌떡 이리섰어요.

그리고 다음순간 다름박질 하려는 내마음을 바보처럼 모르는척, 그대로 멈추어서 생각난듯이 옷을 활활벗어버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불위에 콕-벗고 들어누어 천정을 바라봅니다.¹⁸⁾

17) 레나 린트호프, 『페미니즘 문학 이론』, 이란표 역, 인간 사랑, 1998, 92-102쪽.

18) 백신애, <아름다운 노을>, 앞의 책, 245쪽.

인용문에서 ‘나’는 사랑의 대상인 ‘S’에게 달려가려는 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인다. 왜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지 못하는가. 그녀가 ‘이혼녀’이기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녀가 이혼녀란 점이 그녀의 행동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다. S도 그녀가 이혼녀란 점을 개의치 않고 있다. 직접 인용되는 그의 언어와 그녀가 대신 전달하는 그의 언어에도 그러한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나혜석과 김명순 소설의 신여성 주인공들은 연애의 자유를 위해 전통적 정조관념을 무시하거나 주도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¹⁹⁾ 백신애의 소설의 신여성 주인공들도 부모의 결혼 요구를 거부하여 가출하거나 이혼을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다. 하지만 백신애가 선배 여성 작가들처럼 자유주의 여성 해방 사상에 의해 개인의 애정 성취를 최우선시 하고 이로 인해 전통적 정조관념을 부정하며 가출과 이혼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애 소설의 신여성 주인공들은 애정보다 이념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명에서>에서의 ‘나’는 현재 조직에서 이탈한 방향전환자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회주의에 대해 회의하거나 불신하고 있지는 않다. 그녀의 동지였던 ‘김’과 그의 동지인 S와 그녀가 전혀 이념적인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녀는 조직에서 이탈하였지만 조직의 이념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남녀의 연애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S에게 연애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단지 그와의 관계 맺음에서 애정의 성취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념의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입으로 분명히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연애이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일컫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며 알려고 애쓰기도 싶읍니다. 다만 “연애이상”이라고 밖에 아모런 표현도 할수없읍니다. 왜

19) 박종홍,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정조관념’」, 『한국문학논총』, 34집, 2003. 8, 461-481쪽.

나하면 연애는 미(美)입니다. 신비스러운 미(美)이어요. 그러나 나는 당
신에게 그 신비스런 미의 감정을 지나 “힘”이란 느낌을 가졌는 까닭입
니다. 힘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절대”의 미를 가졌어요.²⁰⁾

인용문에서 ‘나’는 S와의 관계를 연애 이상이라 부른다. 그에 대한
감정이 남녀의 연애 감정을 넘어선 절대의 미를 가졌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연애라는 어휘의 범주에서 그들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다. 왜 이렇게 그녀가 연애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가. 그것은
연애를 최우선시 한 자유주의 여성해방사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관계에서 연애를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녀는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에 의거한 ‘붉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남녀간의 사랑
은 그들의 임무인 사회 진보에 공헌하는 동지적 사랑이며, 자각한 남
녀의 사상적 결합을 강조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애가 개인사이기에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때에 자유롭게 육체적
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애가 일차적인 임무인 사회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여성 단체인 ‘조선
여성 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을 주도했던 허정숙은 이러한 사회주
의 연애를 실행에 옮긴 신여성이다. 그녀는 실제로 네 명의 남자와 사
상적으로 결합하여 동거한 바 있다.²¹⁾ 백신애도 그 두 여성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백신애가 붉은 사랑을 전적으로

20) 백신애, <혼명에서>, 앞의 책, 262쪽. 그런데 인용문의 “애쓰기도 싫습니
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 “애쓰기도 싫습니다.”(『불꽃의 여자 백신애』,
신회천 엮음, 보성출판사, 1987, 219쪽은 그렇게 되어 있다.)의 오식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21) 서형실, 「일제말기 신여성의 자유연애론」, 『역사비평』 25, 역사비평사, 1994
년 여름, 119-121쪽.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백신애 자신의 생애에서나 작품 속 여성 주인공들의 행위에서 남녀의 자유로운 육체적 결합을 긍정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애보다 동지적 결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붉은 사랑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²²⁾

<혼명에서>에서 ‘나’는 이혼녀이자 전향자이다. 이혼녀란 점은 그녀에게 수치나 후회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전향자란 점은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전향자란 어휘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때에 그녀에게 전향자의 굴레를 벗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S였던 것이다. 연애 이상의 절대적 힘을 지닌 그의 존재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의 강력한 사회주의 언어가 그녀의 의지와 신념을 굳건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새로운 출발 직전에 S의 죽음 소식을 듣지만, 그녀는 애인이자 동지인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굳건히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혼명에서>의 신여성 주인공 ‘나’는 이념을 중시하면서도 모성과 애정의 추구를 일의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양가성 속에서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그것을 지양하여 사회 운동에 나서고자 하는 자신의 방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양가적 의식 속에서 분열되어 대립하고 경쟁하던 가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사회주의 언어 주체에 능동적으로 포섭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여성해방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백신애의 사후에 발표된 유작으로 신여성의 일탈적 애정을 다룬 <아름다운 노을>(『여성』, 1939. 11-1940. 2)이 있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백신애의 작품에서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에서도 신여성 주인공의 내면에서만 일탈이 나타날 뿐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미완성이고 창작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작품이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

3. '집 떠남'의 양상과 그 의미

일반적으로 집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보호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휴식을 통해 활력을 찾고 생활의 기쁨을 얻는 안정의 공간이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의 공간이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집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불안과 감금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집이 외부 공간보다 열악하여 인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휴식을 주지 못할 때에 불안의 공간이 되고 다른 구성원의 요구와 금기에 호응할 수 없을 때에 감금의 공간이 되고 만다. 이때에는 집이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집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것의 기능이 어떠한 간에 우리는 집을 떠날 욕구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의적으로 집을 떠나기도 한다. 작품 속의 주인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야 한다. 특히 여성 경우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엘런 모어스는 문학적인 여성의 역사를 '집 밖으로의 보행'이란 비유로 설명한다.²⁴⁾ 여성이 집을 떠남에 있어 감금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아실현의 모색이란 측면이 강하게 작

23) 바슐라르는 “집은 인간의 몸뚱이가 가지는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취한다. 그것은 폭우 아래에서 등을 세우고, 허리에 힘을 준다. 돌풍을 받으면, 일시적인 패배를 언제나 부정하면서 제 때에 몸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몸을 굽혀야 할 때에는 굽힌다. 이와 같은 집은 인간을 우주적인 용맹으로 불러간다. 그것은 인간이 우주와 용감히 맞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라고 했다. 집의 보호적이고 저항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133쪽.

24) Ellen Moers, *Literary Woman*, N. Y. Doubleday Company, 1976, p. 130.

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의 환경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며 의식적이든 무의적이든 간에 이전에 그들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 하려는 소망이 외적 행위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혼명에서>에는 자유주의, 가족주의, 사회주의의 언어 주체가 신여성 주인공의 양가적 의식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극복 방향을 찾고 있었다. 특히 가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이 외적으로 발현된 집 떠남의 양상도 이러한 세 가지 사회어에 의한 담론과 이와 긴밀하게 관련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각각의 담론에 기반을 둔 집 떠남을 ‘자유적 집 떠남’, ‘가족적 집 떠남’, ‘사회적 집 떠남’이라 부르기로 한다. ‘자유적 집 떠남’은 개인의 자유로운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한다. ‘가족적 집 떠남’은 이와 달리 개인의 욕망 추구보다 가족들의 요구와 기대에 호응하여 집을 떠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집 떠남’은 ‘자유적 집 떠남’처럼 가족들의 소망이나 기대와 무관한 행동이다. 그렇지만 ‘자유적 집 떠남’은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나 일탈을 보여주는 집 떠남이라면, ‘사회적 집 떠남’은 집단을 중시하여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여 이념을 더욱 중시하는 ‘집 떠남’이다.

그런데 집 떠남은 이러한 지향의 차이에 의한 구분뿐만 아니라 지속 기간의 차이에 의한 구분도 필요하다. 집을 떠나는 행위에서 시간의 양적 차이가 질적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 기간의 길이 따라 ‘짧은 집 떠남’과 ‘오랜 집 떠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지속 기간의 길고 짧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명확한 척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략 한 달 이상의 집 떠남은 ‘오랜 집 떠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앞에서 분류한 세 가지 유형과 결합하여 다시 나눈다면 ‘자유적 짧은 집 떠남’, ‘자유적 오랜 집 떠남’, ‘가족적 짧은 집 떠

남', '가족적 오랜 집 떠남', '사회적 짧은 집 떠남',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의 여섯 가지 유형이 나온다.

<혼명에서>에서 두 번 연속해서 나타나는 '짧은 집 떠남'은 작품의 전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처음의 '자유적 짧은 집 떠남'은 '나'가 조선의 고도인 경주로 충동적인 여행을 떠난 것이고, 다음의 '가족적 짧은 집 떠남'은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경성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의 짧은 집 떠남에서 '나'는 S와 세 번이나 우연히 만난다. 그녀는 마치 운명의 희롱을 받는 듯하여 그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는 반갑고 기뻐하기보다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란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우연? 이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피차 또박또박 제가지나야할 코-쓰를 밟아 온 결과로 서로 그 코쓰가 한대 교차되었는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가장 자연적 결과입니다."²⁵⁾라고 한다. 우연이란 달리 본다면 가장 자연스런 필연인 운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 전통적인 운명론을 이성적 합리론에 의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²⁶⁾

그런데 이러한 '짧은 집 떠남'과 달리 '오랜 집 떠남'은 모두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나 미래에 있을 일로 나타

25) 백신애, <혼명에서>, 앞의 책, 256쪽.

26) 백신애의 등단작인 <나의 어머니>에는 외출이라 부를 '사회적 짧은 집 떠남'이 나온다. 여기에서 여성 주인공이자 일인칭 서술자인 '나'는 ××청년회관을 짓기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소인극 공연의 책임 맡아 매일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회운동으로 인해 감옥에 가고 딸은 교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당해 집에 있으며 매일 집을 떠나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에 그녀와 어머니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은 결국 '사회적 오랜 집 떠남'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원하는 '김가'와의 결혼인 '가족적 오랜 집 떠남'을 거부하고 자신이 선택한 '××'와의 결합이란 '자유적 오랜 집 떠남'을 포섭한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과거의 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오랜 집 떠남’과 ‘가족적 오랜 집 떠남’이다. 전자는 모호하게 언급되고 있어 구체적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검열을 의식한 의도적인 모호함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조직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난 일은 그녀의 의식과 행위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²⁷⁾

그렇지만 ‘가족적 오랜 집 떠남’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는 이전에 흔히 ‘출가’라 부르는 의례적인 결혼 제도에 의해서 집을 떠났다. 혼례라는 공식적인 의례에 의한 집 떠남이기에 가족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욕망과는 무관한 집 떠남이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묵묵히 참아왔고 견뎌왔지만 하늘에 던진 돌과 같은 결혼이었기에 필연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오히려 평안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었을 뿐이다.

나의 괴롭음은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이혼한 여자이란 불명예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첫째 방 안에서 나오지말아야하며, 세상의 기구한 억척에서 흘러온 가진 비평을 일일이 변명하고 그리고 주위의 명예를 위하여 세상에 사죄하는 뜻으로 근신하여야되며 그리고 얌전스런 여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된

27) 백신애의 소설에서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은 <낙오>에 잘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 신여성 ‘정희’는 A고을 보통학교 교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직원을 제출하고 고향인 서울로 가버린다. 사직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사회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뒤에 청첩장을 받아 동료 교원이었던 ‘경순’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에, 결혼 전날 그녀가 집을 떠난 버린 것이다. 그녀의 가출 동기에 가족이 반대하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합이란 점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경순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억척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집을 떠난 것은 ‘자유적 오랜 집 떠남’과는 무관하다.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복이 나에게 오리라는것이어요.²⁸⁾

인용문에서처럼 이제 집은 그녀에게 평안과 기쁨의 공간이 아니다. 가족주의의 굴레와 규제로 인해 집은 그녀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 온 것을 불명예이고 심지어 죄악이라 여긴다. 그녀가 사죄하고 근신하여 '얌전스런 여인'이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죄악의 굴레를 벗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다시 집을 떠나야 한다. 이에 김정자는 "백신애의 소설에서 주거공간(집)이 안락과 평온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²⁹⁾라고 한다. 백신애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에게 집이 구속과 규제의 공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혼명에서>에서 가출이라 불릴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나'는 겨울을 집에서 보내고 봄인 삼월에 오랫동안 집을 떠날 예정이다. 그녀는 '짧은 집 떠남'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S와 합류하고자 한다. 이것이 연애의 자유를 위한 '자유적 오랜 집 떠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녀는 S와의 관계를 사랑 이상의 것이라 부른다. 애인에 대한 사랑보다 동지로서의 의기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녀의 이러한 집 떠남은 '자유적 오랜 집 떠남'을 포괄한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이 된다. 또한 자신의 굳은 결심과 설득으로 어머니의 눈물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남에 있어 단호하지만 과격하지 않은 백신애의 지향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은 S의 죽음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의지로 실행에 옮기기로 한다.

최혜실은 여기에서 S의 죽음이 백신애에게 오빠의 죽음을 나타낸다

28) 백신애, <혼명에서>, 앞의 책, 248쪽.

29) 김정자, 「여성소설의 공간적 의미 대비-백신애와 강신재의 소설에서-」,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지사, 1991, 70쪽.

고 본다. “작품에서 ‘오빠’의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작가의 작품에는 항상 ‘오빠’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궁핍의 한국 현실을 비판하던 전기 소설에는 담론 구조 자체가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해 있었고 <광인수기>에서는 남편의 담론, <혼명에서>는 S의 담론으로 존재한다.”³⁰⁾라고 했다. 하지만 백신애에게 오빠의 죽음이 사회주의 담론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명에서>에서 ‘나’는 S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운동을 위해 집을 떠난다. 그의 죽음이 사회주의와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현은 “이렇게 독백에서 대화로의 언어 이동은 자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어둠과 좌절의 ‘혼명’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희망의 새벽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³¹⁾라고 했다. 이 때에 ‘나’가 주체적으로 S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 교환적이고 대화적인 편지를 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S가 죽은 뒤에 비로소 ‘나’의 언어가 독백에서 대화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독백에서 대화로의 언어 이동이 S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녀의 독백은 처음부터 양가성으로 인해 독백이면서 대화였다. 가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그녀의 언어에 시종 상호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S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S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화의 언어가 그것을 갱신한 새로운 독백의 언어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명에서>에서 ‘나’는 ‘사회적 오랜 집 떠남’에서 집으로 돌아 온 것을 시종 후회하고 있다. S가 방향전환을 한 후의 감상을 묻자 그녀는 “나는 무한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큰단체에서 떠러져나온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얼마나 외로운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나에

30) 최혜실, 앞의 글, 435-436쪽.

31) 김미현, 「‘사이’에 집짓고 살기-백신애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243쪽.

게서 그열열하던 의기가 살아져가는 비애를 느꼈습니다”³²⁾라고 한다. 조직에서 이탈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그녀는 S와의 관계를 계기로 삼아 어머니와의 관계를 갱신하고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전에 조직 활동에서 '의기'란 어휘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념'이란 어휘의 약화나 상실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맹목적이고 단의적인 이념 맹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2부의 제목이 '천국으로 가는 편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천국은 재래의 천국이 아니라 '희망의 녹기를 높이 쫓은' 새로운 천국이다. 그녀가 내세가 아닌 현세에 존재하는 새로운 이상 사회의 건설에 참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정희 소설에서는 백신애의 경우와 달리 '자유적 집 떠남'이 주로 나오는데 거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인 것이다. <천맥>과 <지맥>에서 신여성 주인공들인 '연이'와 '은영'은 공식적인 혼례를 거치지 않은 유부남과의 동거란 '자유적 오랜 집 떠남'을 통해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다. <인맥>에서는 신여성 주인공인 '선영'이 친구의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다 거절당하자 다른 남자를 찾아가 여관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는 '자유적 짧은 집 떠남'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정희에게서 '사회적 오랜 집 떠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봉사 활동이다. <천맥>에서 '연이'가 재혼하여 가정주부가 되는 대신에 옥수동 보육원을 찾아가서 고아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 그러하다. 하지만 결말에서 그녀도 원장인 선우 선생에 대한 사랑으로 고뇌하고 있듯이 이것도 '자유적 오랜 집 떠남'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최정희 소설은 '자유적 집 떠남'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집 떠남'이 주류를 이루는 백신애 소설과 최정희의 소설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강경애의 소설에서도 백신애의 경우처럼 여성 주인공들의 '사회적

32) 백신애, <혼명에서>, 앞의 책, 251쪽.

집 떠남'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강경애 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 집은 평온과 보호의 공간이기보다는 불안과 고통의 공간이었다. 이에 김정자는 “강경애의 집은 안식과 평안을 주는 쾌적한 공간이 아니다. 그의 집은 등장인물들을 감금하고 구속하는 무섭고 음습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과 두려움의 공간을 탈출한 그들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³³⁾라고 했다. 강경애에 있어 ‘사회적 집 떠남’의 결과는 대개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 그녀가 현실 극복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애에 있어 ‘사회적 집 떠남’의 결과는 작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란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백신애는 여성 주인공들의 사회 운동을 통해 현실 극복의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애와 백신애는 여성들의 ‘사회적 집 떠남’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애는 여성들의 현실 극복의 전망에 있어서는 강경애와 대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혼명에서>에서 신여성 주인공 화자인 ‘나’는 독백을 통해 양가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주의 담론과 S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담론이 공존하면서 상호 충돌하며 경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백의 상대자로 S가 선택되고 있듯이 사회주의 여성 담론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담론의 경쟁에서 S가 ‘나’의 애인이자 동지란 점에서 사회주의 담론에는 자유주의 담론도 배제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과거에 ‘사회적 오랜 집 떠남’과 ‘가족적 오랜 집 떠남’을 행하

33) 김정자, 「강경애, ‘집’의 전이적 의미」, 앞의 책, 89쪽.

였지만, 전향자와 이혼녀가 됨으로써 그러한 집 떠남은 의미를 잃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이 낙관적 전망 속에서 예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적 짧은 집 떠남'과 '가족적 짧은 집 떠남'은 직접 서사 전개에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S와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오랜 집 떠남'의 계기를 이루고 있었다. S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운동에의 출발을 굳건히 다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상 사회건설의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앞선 세대인 1910-20년대의 여성 작가들인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등이 과격한 어조와 전위적 행동을 통해 애정의 성취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 전통적 정조 관념을 거부하고 갱신하고자 했다. 또한 1920-30년대 여성 작가들 중에서 최정희와 이선희가 앞선 시기의 여성 작가들에 비해 보다 온건한 어조와 유연한 행동을 통해 애정의 성취와 모성의 실현을 긍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경애와 박화성은 다소 과격한 어조로 계급해방을 통한 여성 해방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여성 주인공의 양가성과 집 떠남의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신애는 다른 여성 작가들의 편향성을 지양한 포용적 여성 해방 담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미현, 「'사이'에 집짓고 살기-백신애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217-250쪽.
 김정자, 「여성소설의 공간적 의미 대비-백신애와 강신재의 소설에서-」,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지사, 1991, 70쪽.
 박종홍,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의 '정조관념'」, 『한국문학논총』, 제 34집, 2003. 8, 461-481쪽.
 백신애, 『불꽃의 여자 백신애』, 신회천 엮음, 보성출판사, 1987, 219쪽.

- 서형실, 「일제말기 신여성의 자유연애론」, 『역사비평』 25, 역사비평사, 1994년 여름호, 119-121쪽.
-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7. 12, 113-136쪽.
- 윤옥희, 「1930년대 여성작가 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86-130쪽.
- 이은숙, 「백신애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8, 1-94쪽.
- 이강언, 「백신애의 삶과 문학」, 『한국현대소설의 전개』, 형설출판사, 1992, 115-142쪽.
-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석사논문, 2002. 2, 23쪽.
- 한명환, 「백신애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6, 1-83쪽.
-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 연구」, 효성여대 박사논문, 1992, 2, 30-141쪽.
-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7. 12, 104-115쪽.
-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79쪽.
- 최현무, 미하일 바흐친과 후기 구조주의, 바흐친과 대화주의, 김옥동 편, 나남, 1990, 256쪽.
- 최혜실, 「그 여자가 말하는 세 가지 방식」, 『아름다운 노을 (외)』, 최혜실 편, 범우, 2004, 424-425쪽.
-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선, 2003, 133쪽.
- 로버타 해밀타, 『여성해방논쟁』, 최민지 역, 풀빛, 1982, 15-18쪽.
- 레나 린트호프, 『페미니즘 문학 이론』, 이란표 역, 인간 사랑, 1998, 92-102쪽.
- 페터 V. 지마, 『소설과 이데올로기-현대소설의 사회사』, 서영상·김창주 역, 문예출판사, 1996, 43쪽.
- 피에르 지마, 『문학의 사회비평론』, 정수철 역, 태학사, 1996, 166-188쪽.

<Abstract>

A study on the New women's "home-leaving"
and "ambivalence"

Park, Jong-Hong

"I", a "new woman" shows ambivalence as the subjects of familism, represented by the role of "Mother" and socialism, represented as "S" crashes and competes. "S" is a comrade as well as a lover, so he is connoted in liberalism and the subject of "my" speech. Here, "I" does not just eliminate motherhood or love, she sublimates them into the practice of ideology. Discourses of familism, liberalism, socialism that were torn apart, conflicted and competed were being progressively taken apart due to ambivalence.

This course of dismantling is shown specifically through an aspect of long-term home-leaving. "I" had "Social long-term home-leaving" as she participated in organizations and "Actual long term home-leaving" as she got married but she returned home divorced and changed in thoughts. But in optimistic prospect, "Social long-term home-leaving" was planned. As "I" do not be baffled at "S"'s death, "Liberal long-term home-leaving" is connoted in "Social long-term home-leaving".

So we can assume that <in Immense and profundity> is the forefront piece of literature during Japan's occupation that persuasively showed the new feminism discourse by presenting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through "New women"'s dismantling of ambivalence and the aspect of home-leaving.

박종홍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전화: 053-810-3194, 016-9812-3194

e-mail: parkjh@yumail.ac.kr

| | | | | |
|-------|-------|----|-------|--------|
| 이 논문은 | 2006년 | 4월 | 30일 | 투고하여 |
| | 2006년 | 5월 | 30일까지 | 심사완료하여 |
| | 2006년 | 6월 | 30일 | 간행함 |